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어
‘삼양1963’ 돌풍
L1

metro[®]

Life

HK이노엔
국산신약 ‘케이캡’
일본 사업권 확보
L2



생애 첫 저축부터 노후의 버팀목까지... 희망으로 이어진 동행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KB라이프

KB라이프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미션으로 내건 KB금융그룹의 생명보험사다. 지난 2023년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이 합쳐 새 출발한 뒤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 행복파트너’를 내세운다. 보험을 넘어 노후·자산관리·라이프케어까지 고객의 삶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라이프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비전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이웃 곁에서 포착되는 장면들 속에서 드러난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던 시기, KB라이프의 연금보험은 고객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됐다. 지난 7월 ‘2025KB라이프 파트너데이’에서 28년차 고객 김동섭 씨는 “연금보험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며 “이제는 청소년 멘토링과 무료 법률상담으로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그는 KB라이프가 말하는 ‘평생 행복파트너’의 의미를 보여줬다.

◆ 놀이처럼...아이들의 첫 금융 습관

KB라이프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를 찾아가는 경제교실에선 보육시설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용돈 관리와 소비 계획 세우기 등 기초 경제 개념을 다뤘다. 아이들은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저축과 소비,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나만의 용돈 계획표를 작성해 ‘돈과 친해지는 첫 경험’을 했다.

서울 신림중과 맺은 ‘1사1교 금융교육’도 대표 프로그램이다. KB라이프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는 1학년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소득·저축·투자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행복 요소 찾기 빙고’와 보드게임으로 흥미를 더했다. 딱딱한 금융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아이들이 일상 속 선택을 떠올려 스스로 사고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KB라이프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똑똑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습관

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명을 잇는 기증, 국경 너머 나눔

‘생명존중’은 KB라이프 사회공헌의 또 다른 축이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라이프파트너를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300여명이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27명이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재단은 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아 “생명보험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나누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아카데미’도 빼놓을 수 없다.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 21명이 한 해 동안 27회의 강연을 열고, 413명이 참여해 재단의 1대 1 매칭을 더한 기부금 4530만원을 마련했다. 2010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약 8억 9000만원, 참여 임직원과 라이프파트너·외부 강사는 290명에 이른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객 유자녀와 라이프파트너로 구성된 ‘KB라이프 해외봉사단’의 활동에 쓰인다. 봉사단은 내년 초 인도네시아 희망학교를 찾아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벽화 그리기와 플로깅을 통해 포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시니어와 이웃...일상의 온도를 높인다

시니어와 지역 이웃을 위한 돌봄 활동 역시 활발하다. KB라이프는 계열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를 찾아 공연장 아동을 돕고 공예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비 춤대’를 만들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시간을 나누고 눈을 맞추는 ‘정서 돌봄’에 방점을 찍은 활동이다.

강남구에서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겨울 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9명이 방한용품 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전달하고, 창문에 단열재를 부착해 난방비 부담을 덜었다. 2인 1조로 나선 가정 방문에서는 말벗 봉사 안부 확인이 함께 이뤄졌다. “겨울이 될 외롭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KB라이프 자원봉사 교사들이 신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이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 요양시설을 방문해 공예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KB라이프

보험 넘어 노후·자산관리·케어까지 고객의 삶 함께 설계 ‘라이프 플랫폼’

아동·청소년에 건강한 금융습관 전파 임직원,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펼쳐 기부문화 확산 ‘나눔 아카데미’ 강연

시니어·지역이웃 찾아 돌봄봉사활동 소비자의 날 맞아 소비자 보호 캠페인 연령대별 의견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완성

거리 환경을 지키는 활동도 눈에 띈다. KB라이프 임직원 150여명은 ‘KB라이프 플로깅 데이’를 열고 강남대로 일대 도로와 공원, 놀이터, 우수관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진행된 이 활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보호와 고객 의견 반영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KB라이프는 소비자의 날을 맞아 사육 앞에서 임직원들에게 ‘소보로(소비자보호로 가는 길)’ 빵을 나눠줘 소비자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MZ세대와 시니어 고객으로 구성된 고객패널 ‘KB스타지기(知己)’는 온라인보험 가입 여정, 시니어 전용 웹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해 왔다. ‘라이프를 나뉘답게’라는 슬로건처럼, 고객의 삶과 목소리가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되는 구조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KB스타지기(知己)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서 ‘조혈모세포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기형서 KB라이프 소비자보호본부 부사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제4기 고객패널 KB스타지기(知己)’ 해단식에서 고객패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누적 연봉 1900억 추신수 “명예의 전당이든 재산 바꿀 수 있다”
▲빙속 김민선, 4차 월드컵 500m 2차 레이스 동메달...시즌 첫 포디움 /사진 뉴스스

▲‘서툼글 여제’ 안세영, 왕중왕전서 ‘역대 최다승’ V11 도전
▲김은지, 오유진 꺾고 난설헌배 여자바둑대회 4연패 달성

▲배드민턴 노영훈·보치아 차해준, 아시아유스패러게임 금메달
▲봅슬레이 4인승 김진수팀, 월드컵 3차 대회 두 번째 경기 14위